

세월따라 쇠퇴해도... 광주 최대 상권은 여전히 '충장로'

충장로 사업체 3335개·종사자 4469명
연간 폐업 점포 수도 가장 많아
연매출은 상무지구 3분의 1 수준에 그쳐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원도심 상권의 쇠퇴에도 광주 시내 최대 상권은 여전히 충장로였다.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광주 구도심 상권은 광주시의 외곽지역 개발로 인해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 신규 상권들이 형성되면서 점점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지역 상권 가운데 사업체 수와 사업자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장로 상권은 연간 폐업 점포 수도 가장 많았고, 연매출은 상무지구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충장로 상권이 언제까지 광주 최대 상권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호남지방통계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 지역 주요상권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지역 주요 상권 소재 사업체 수는 2만2658개로 집계됐다. 상권별로 보면 충장로 상점가가 3335개로 가장 많았고, 첨단 젊음의거리(2291개), 금남로 상점가(1416개), 수완 나들목(1381개) 순으로 많았다. 종사자 수에서도 충장로 상점가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광주지역 주요 상권 종사자 수 역시 충장로 상점가가 4469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첨단 젊음의거리(4135명), 상무역 출구(4089명), 금남로 상점가(4040명) 순이었다.

그러나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충장로 상점가의 종사자 수는 지속 감소하면서 구도심 쇠퇴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충장로 상점가 종사자는 지난 2015년 5067명에서 2022년 4469명으로 598명(11.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첨단 젊음의거리는 2287명에서 4135명으로 80.8% 증가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상무지구1은 종사자 수가 36.3%, 동구 동명동을 중심으로 한 동리 단길은 18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충장로는 상권 규모는 크지만, 사업체별 연매출은 다른 상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장로 상점가의 사업체별 연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6억 1800만원으로, 상무지구1(13억7800만원)과 상무지구2(21억4600만원)에 크게 못미쳤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구도심 상권인 충장로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수가 많았던 반면, 상무지구는 연매출 규모가 큰 사업체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충장로 상점가는 5000만원 미만 사업체 비중이 52.7%로, 1~5억원 미만(21.8%), 5000만~1억원 미만(14.9%), 5억원 이상(10.7%) 순이었다. 반면, 사업체별 연매출 규모가 가장 컸던 상무지구2의 경우 매출액 1~5억원 미만 사업체 비중이 32.8%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사업체도 20.3%에 달했다. 충장로 상점가는 연간 폐업사업체 수도 가장 많았다. 광주지역 주요 상권 폐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충장로 상점가가 428개로 가장 많았고, 첨단 젊음의거리(421개), 수완나들목(19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조선대병원 '중환자 중심 병원' 탈바꿈 ▶6면
복스 - '유홍준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 ▶14-15면
프리미어12, KIA 김도영·정해영 등 5명 출전 ▶18면

알립니다

신 해양 관광 시대 전남 관광 개발 포럼

14일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

광주일보가 천혜의 자연, 산해진미, 맛과 정을 간직한 전라남도의 미래 관광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남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세계 속에 빛나게 할 관광 관련 아이디어와 정책, 사업 등이 논의될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신 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 - 전남의 비전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
- 주최: 전라남도
- 주관: 광주일보
- 기조 발제: 손재호 전 대통령 자문위원장 '해양문화관광의 세계적 추세와 인사이트'

光州日報社

尹 "국민께 사과...특검은 정치 선동"

대국민 담화 발표·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약 15분간 담화를 발표한 뒤 각종 현안을 놓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다"고 사과했다. 또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

다"며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이날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에 대해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한 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에
- 국내 수입차 차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25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